

대학 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동남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권 해 정

ABSTRACT

A Survey on the University Players' Understanding about Physical Therapy

Hei Jeoung Kown, R.P.T., M.P.H.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ong Nam Health Junior College
Suw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early recovery of injury and maintain the university players health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0 university players, by whom the questionnaires were filled out and who lived in Seoul and Suweon.

The period of data collecting was from 21th to 23th of May in 1987. I analysed the data into percentage, frequency, Mean and S.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ge: The twenty-year-old players was 35.2%.
2. Religion: Non-religious players was 42.7%.
3. Types of injury: Contusion was 27.4%. Myalgia was 26.6%.
4. The players' understanding of the academic career of the physical therapists:
Junior College Graduate was 25.3% University Graduate was 25.8%.
Educational Institute Course Finished was 16.8%.
5. Satisfaction of P.T. was significant.
6. Satisfaction of P.T. was 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career and the item of the players.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제한점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 2. 조사방법
 - 1) 자료 수집방법 및 기간
 - 2) 조사내용
- 3. 조사처리 및 분석방법

III. 연구결과

IV.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제까지 선진국과 부유국의 독점물이었던 올림픽을 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된 88년 서울 국제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와 체육계는 물론 온 국민이 스포츠 중흥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¹⁾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화랑도 정신을 통하여 삼국을 통일한 고사가 스포츠의 기본이념¹⁾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체력은 국민 각개의 잠재력의 총화이며 국민적 저력의 집약이 된다.²⁾

그런데, 국제스포츠제전을 맞이하여 스포츠의 인구가 저변 확대됨에 따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신체장애가 다수 발생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스포츠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에 악영향인 스포츠 장애는 체육발달 뿐만 아니라, 개인운동선수, 기업, 정부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1983)³⁾, 성(1986)⁴⁾은 과학화된 스포츠 의학의 발전이 가속화되어야 할 실정이라고 했다.

Pender(1974)⁵⁾는 “건강한 사람이나 회복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적절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건강문제를 알고있어야

한다.” 고 했듯이 손상을 항시 받을 수 있는 운동선수들은 물리치료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Dumas(1963)¹⁶⁾, Nickerson(1972)¹⁹⁾은“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상태에 관해 이해가 부족할 때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생기는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했고, Dodge(1969)¹⁷⁾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신의 치료에 협조적이고, 질병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가 있을 때는 정서적으로 다양하게 불안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고했듯이 불완전하게 치료한 상태에서 시합에 임했을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할 때는 충실한 경기를 이끌지 못할 것이므로, 운동선수에게 필요하고, 만족할 만한 물리치료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수한 선수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기 예방하고, 손상을 입었더라도 신속히 시합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치료함으로써 지속적인 신체의 향상에 대한 희망을 줄 뿐더러, 개인자신의 기록 갱신과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속히, 과학화된 스포츠 의학이 발전되어, 스포츠 손상의 원인 분석, 손상 부위의 신속한 복귀를 위한 물리치료, 약물, 수술요법이 필요하며¹⁴⁾, 특히 선수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한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물리치료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에 대한 손상의 조기회복과 체력유지를 위한 기초자료제공의 일환으로써, 대학 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정도를 다음과 같은 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 1) 대학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 2) 대학 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인식(지식, 필요, 만족)을 알아본다.
- 3) 대학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의 제요인과 물리치료 만족도에 대한 관계를 알아본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음을 명시

한다.

1) 조사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로 5개 대학을 선정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 운동선수에게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2) 조사대상자 190명 중에 여자 운동선수는 26명 (13.7%)으로 남녀 비교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3)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어서 비교 고찰할 수가 없었다.

수원에 위치한 K대학의 남녀 운동선수 중 22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이 중에 설문지가 회수된 190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운동 종목별로 보면 구기종목에는 축구, 럭비, 배구, 농구, 조정, 핸드볼, 하키 등의 7개 종목이었고, 개인종목에는 유도, 역도, 씨름, 사이클, 육상, 사격, 펜싱, 궁도, 테니스, 권투, 스케이트, 수영, 체조 등의 13개 종목^{9) 11)}으로 총 20개 종목이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서울에 위치한 M대학, D대학, K대학, H대학과

2. 조사방법

1) 자료 수집방법 및 기간

1987년 5월 15, 16일 양일간 운동선수 10명에게

표 1. 대학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 수	비율 (%)	특 성	구 분	실 수	비율 (%)
연 령	— 18세	8	4.2	운 동 경 력	2년 미만	0	0
	19세	49	25.8		2—4년	20	10.5
	20세	67	35.2		4—6년	56	29.6
	21세	38	20.0		6—8년	58	30.5
	22세	18	9.5		8—10년	32	16.8
	23세	10	5.3		10년—	24	12.6
	계	190	100.0		계	190	100.0
	성 별	남	164		86.3	결 혼 기 혼	기 혼
여		26	13.7	미 혼	188		98.9
계		190	100.0	계	190		100.0
학 년	1학년	69	36.4	부 상 경 험	0	3	1.6
	2학년	70	36.8		1	13	6.8
	3학년	31	16.3		2	28	14.7
	4학년	30	10.5		3	37	19.5
	계	190	100.0		4	33	17.4
					5회—	76	40.0
운 동 부 서	개 인	81	42.6	입 원 경 험	유	55	28.9
	구 기	109	57.4		무	135	71.1
	계	190	100.0		계	190	100.0
종 교	천주교	16	8.4	부 상 종 류	염 좌	50	12.9
	기독교	51	26.8		탈 구	32	8.3
	불 교	36	18.9		타락상	106	27.4
	기 타	6	3.2		관 결	2	16.3
	무 교	81	42.7		근육통	103	26.6
	계	190	100.0		기 타	33	8.5
			계	187	109.0		

연구자가 고안한 설문지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1987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훈련된 조사원 6명과 본인이 직접 각 대학을 방문하였으며, 대상자 총 220명에서 회수된 설문지 196명 중 처리 불가능한 6명을 제외한 190명을 대상으로 통계·처리하였다.

2) 조사내용

- (1) 대학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 10 문항
- (2) 물리치료의 지식에 관한 문항— 8 문항
- (3) 물리치료의 필요에 관한 문항— 8 문항
- (4) 물리치료의 만족에 관한 문항— 14 문항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일반적 특성과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물리치료 만족도에서는 Likert type 을 사용하여, ‘매우만족’ 1점, ‘만족’ 2점, ‘보통’ 3점, ‘불만’ 4점, ‘매우 불만’ 5점을 주어 계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학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총 190명 중에 남자가 164명(86.3%)이었

으며, 연령별로는 20세가 67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종류로는 타박상이 106건(2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근육통 103건(26.6%)이었다. 조사표에 파악된 대상자의 각종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1).

2. 대학 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지식 정도

- 1)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유무 및 경위
물리치료를 알고 있는 운동선수는 166명(87.4%)이었으며, 그 경위는 ‘운동 연습후 손상을 입고 난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가 106명(63.9%)으로 가장 많았다(표 2,3).
- 2)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식유무 및 역할
물리치료사를 알고 있는 운동선수는 121명(63.7%)이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물리치료 기사로서’가 62명(51.2%)으로 가장 많았다(표 4,5).
- 3) 물리치료사 학력에 대한 지식상태
물리치료사 학력을 전문대졸이 67명(35.3%)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은 대학졸(4년제)이 49명(25.8%), 보조학원이 32명(16.8%)의 순이었다(표 6).
- 4) 물리치료사와 A.T.의 역할 지식유무 및 같다는 이유

물리치료사와 A.T.를 같다고 한 운동선수는 92명(48.4%)이었으며,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A.T.

표 2.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유무

구 분	실 수	비 율 (%)
예	166	87.4
아 니 오	24	12.6
계	190	100.0

표 4.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식유무 및 역할

구 분	실 수	비 율 (%)
예	121	63.7
아 니 오	69	36.3
계	190	100.0

표 3.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경위

구 분	실 수	비 율 (%)
운동 연습후 손상을 입고 난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106	63.9
친구, 선배를 통해서	28	16.9
집안 식구나 친척을 통해서	7	4.2
경의 시간을 통해서	19	5.4
매스컴(신문, 라디오)을 통해서	15	9.0
기 타	1	0.6
계	166	100.0

표 5.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지식상태

구	분	실 수	비율 (%)
	의사의 보조자로서	15	12.4
	맞사지를 주로 하는 안마사로서	12	9.9
	지압을 주로 하는 지압사로서	11	9.1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물리치료 기사로서	62	51.2
	테이핑을 주로하는 A.T. 로서	13	10.8
	접골사의 보조자로서	4	3.3
	기 타	4	3.3
계		121	100.0

* A.T. : Athletic Trainer (한국 선수 의료 트레이너)

표 6. 물리치료사 학력에 대한 지식상태

구	분	실 수	비율 (%)
고 졸		4	2.1
전문대졸 (2년제)		67	35.3
대학졸 (4년제)		49	25.8
보조학원		32	16.8
기 타		28	14.7
한국에는 양성기관이 없다		6	3.2
무응답		4	2.1
계		190	100.0

와 물리치료사의 치료가 같기 때문에"가 33명(35.9%)이었으며, 같지 않다고한 운동선수는 98명(51.6%)이었으며, 같지 않다면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하는가는 '물리치료과에서'가 47명(48.0%)으로 가장 높았다(표 7,8,9).

표 7. 물리치료사와 A.T.의 역할 지식유무

구	분	실 수	비율 (%)
	예	92	48.4
	아니오	98	51.6
계		190	100.0

표 8. 물리치료사와 A.T.가 같다고 생각한 이유

구	분	실 수	비율 (%)
	한국에는 A.T.가 없으므로 물리치료사가 주로 대리하기 때문에	28	30.4
	A.T.와 물리치료사의 치료가 같기 때문에	33	35.9
	A.T.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한다	26	28.3
	기 타	5	5.4
계		92	100.0

표 9. A.T. 양성기관

구	분	실 수	비율 (%)
	물리치료과에서	47	48.0
	체육학과에서	9	9.2
	체육학과, 물리치료과 양쪽에서	23	23.5
	다른과에서	4	4.1
	모르겠다	15	15.2
계		98	100.0

3. 대학 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필요정도

1) 물리치료에 대한 필요유무 및 불필요한 이유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운동선수는 143명 (75.3%)이었고, 불필요한 이유는 “물리치료가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가 28명(59.6%)으로 가장 많았다(표 10,11).

표 10. 물리치료에 대한 필요유무

구 분	실 수	비율 (%)
필 요	143	75.3
불 필 요	47	24.7
계	190	100.0

표 11. 물리치료가 불필요한 이유

구 분	실 수	비율 (%)
물리치료가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8	59.6
물리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다	7	14.9
물리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가 더 효과적이다	12	25.5
기 타	0	0
계	47	100.0

2) 상해 당시 치료자

상해 당시 치료자는 의사가 111명(5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침구사가 22명(11.6%)이었다(표 12).

3) 물리치료 교과목의 유무, 필요유무 및 필요한 이유

체육학과에 물리치료 과목이 없는 경우가 170명(89.5%)이었고, 교과목이 없다면 필요한 경우가 144명(84.7%)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물리치료를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43명(29.9%)으로 가장 많았다(표 13,14,15).

4. 대학 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만족도

1) 물리치료에 대한 경험유무 및 효과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한 이유

물리치료를 받아보았다는 운동선수는 154명(81.1%)이었고,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불만’이 57명(37.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통’이 44명(28.6%)이었으며, 유의한 차가 있었다. 불만족한 이유는 “치료효과가 너무 오래 걸린다”가 31명(50.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치료효과가 거의 없다”가 13명(21.0%)이었다(표 16,17,18).

표 12. 상해당시 치료자

구 분	실 수	비율 (%)
의 사	111	58.4
한 의 사	21	11.1
물리치료사	7	3.7
보 건 유 원	8	4.2
간 마사	0	0
접 골 사	16	3.4
침 구 사	22	11.6
기 타	5	2.6
계	190	100.0

표 13. 물리치료 교과목의 유무

구 분	실 수	비율 (%)
있 다	20	10.5
없 다	170	89.5
계	190	100.0

표 14. 물리치료 교과목의 필요유무

구 분	실 수	비율 (%)
필 요	144	84.7
불 필 요	26	15.3
계	170	100.0

표 15. 물리치료 교과목의 필요한 이유

구 분	실 수	비율 (%)
시험에 다쳤을 때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30	20.8
의학지식을 갖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33	23.0
물리치료사 없는 경우 선수 자신이 치료하기 위해서	18	12.5
본인이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	10	6.9
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10	6.9
물리치료를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43	29.9
기 타	0	0
계	144	100.0

표 16. 물리치료에 대한 경험유무

구 분	실 수	비율 (%)
예	154	81.1
아 니 오	36	18.9
계	190	100.0

표 17.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실 수	비율 (%)
매우 만족	9	5.8
만 족	39	25.4
보 통	44	28.6
불 만	57	37.0
매우 불만	5	3.2
계	154	100.0

* Mean : 3.07 S.D : 0.995

표 18. 물리치료 효과에 대한 불만족한 이유

구 분	실 수	비율 (%)
치료 효과가 너무 오래 걸린다.	31	50.0
치료를 받으려던 오래 기다려야 한다	8	12.9
물리치료사가 불친절하다	2	3.2
물리치료사가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다	5	8.1
치료 효과가 거의 없다	13	21.0
기 타	3	4.8
계	62	100.0

2) 효과적인 물리치료 종류

효과적인 물리치료로는 ‘찜질’이 113건(3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맛사지’가 94건(27.5%)이었다(표 19).

3) 1회 물리치료시간

1회 물리치료 시간은 30분 미만인 경우가 73명(47.4%)으로 가장 높았다(표 20).

4) 물리치료 효과 유무 및 원케 되지 않는 이유

물리치료를 받고 원케 되지 않는 경우가 92명(59.7%)이었고, 그 이유로는 “치료기간 중에도 계속 운동을 하기에”가 46명(50.0%)으로 가장 많았다(표

표 19. 효과적인 물리치료 종류

구 분	실 수	비율 (%)
찜질	113	33.0
운동치료	11	3.2
맛사지	94	27.5
테이핑	36	10.5
전기치료 및 광선치료	67	19.6
수치료	14	4.1
기타	7	2.1
계	342	100.0

표 20. 1회 물리치료시간

구 분	실 수	비율 (%)
30분 미만	73	47.4
30분~1시간	71	46.1
1~2시간	9	5.9
2시간 이상	1	0.6
계	154	100.0

표 21. 물리치료효과 유무

구 분	실 수	비율 (%)
예	62	40.3
아 니 오	92	59.7
계	154	100.0

표 22. 물리치료로 완쾌되지 않는 이유

구 분	실 수	비율 (%)
물리치료가 성의 없게 치료해서	5	5.4
본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아서	25	27.2
물리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9	9.8
의상정도가 심해서	5	5.4
치료 기간중에도 계속 운동을 해서	46	50.0
기 타	2	2.2
계	92	100.0

21. 22).

5) 물리치료 후 재발유무 및 상태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 재발된 경우가 99명(64.3%) 이었고, 상태는 '조금 덜함'이 44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그전 상태 그대로'가 40명(40.4%)이었다(표 23, 24).

표 23. 물리치료후 재발유무

구 분	실 수	비율 (%)
예	99	64.3
아 니 오	55	35.7
계	154	100.0

표 24. 물리치료후 재발된 상태

구 분	실 수	비율 (%)
더 심함	10	10.1
그전 상태 그대로	40	40.4
조금 덜함	44	44.4
기 타	5	5.1
계	99	100.0

5. 대학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

운동부서에 따른 물리치료 만족도를 보면 구기가 88명(57.1%), 평균 3.27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운동경력에 따른 물리치료 만족도는 8~10년이 32명(20.8%), 평균 3.38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25).

IV. 고 찰

본 연구의 부상 종류별로는 타박상이 166건(27.4%)으로, 가장 높았고, 이(1987)⁸⁾도 또한 타박상이 37건(42.5%)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김(1984)³⁾은 염좌가 145건(28.6%)로 가장 높았고, 김(1983)⁴⁾, 조 등(1964)¹⁰⁾, 강(1976)¹¹⁾, 하(1985)¹⁵⁾, Bertram(1983)¹⁶⁾도 또한 염좌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 등(1937)⁸⁾은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에서는 치료방법으로는 물리요법을 해야한다고 보고했듯이 운동선수들에게는 물리치료가 절대필요하다.

연령별로는 20세가 67명(35.2%)로 가장 높았고, 종교별로는 무교가 81명(42.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정신적인 종교생활보다는 신체적인 자기

표 25. 대학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실 수 (%)	Mean	S. D.
운동부서	개 인	6	19	27	11	3	66 (42.9)	2.75	0.96
	구 기	3	20	17	46	2	88 (57.1)	3.27	0.96
	계	9	39	44	57	5	154 (100.0)	3.01	0.96
학 년	대학 1년	4	8	19	18	1	50 (32.5)	3.08	0.97
	2년	3	18	15	22	2	60 (39.0)	3.03	1.01
	3년	2	6	4	13	2	27 (17.5)	3.26	1.13
	4년	-	7	6	4	-	17 (11.0)	2.82	0.81
	계	9	39	44	57	5	154 (100.0)	3.05	0.98
운동경력	2년 미만	-	-	-	-	-	-	-	-
	2 - 4년	-	5	4	7	-	16 (10.4)	3.13	0.89
	4 - 6년	3	4	12	13	1	33 (21.4)	3.15	1.00
	6 - 8년	4	18	13	12	2	49 (31.8)	2.80	1.04
	8 - 10년	-	7	8	15	2	32 (20.8)	3.38	0.91
	10년 이상	2	5	7	10	-	24 (15.6)	3.04	1.00
계	9	39	44	57	5	154 (100.0)	3.10	0.97	
부상경험	0번	-	-	1	-	-	1 (0.6)	3.00	0.00
	1번	1	1	2	7	-	11 (7.2)	3.37	1.03
	2번	2	7	6	10	-	25 (16.2)	2.96	1.02
	3번	2	5	9	16	2	34 (22.1)	3.32	1.01
	4번	1	6	3	9	1	20 (13.0)	3.15	1.09
	5번 이상	3	20	23	15	2	63 (40.9)	2.89	0.94
계						154 (100.0)	3.12	0.85	

자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

물리치료사를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운동선수가 121명(63.7%)이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운동선수 62명(51.2%)이고, 그 외는 의사의 보조자, 안마사, 지압사, A.T.로서 잘못 인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학력 또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119명(62.6%)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하다.

물리치료사와 A.T.를 같다고 한 경우가 92명(48.4%)이었으며, 역할이 다른 경우에는 물리치료과에서 담당해야한다고 한 운동선수가 47명(48.0%)으로 A.T.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인식이 필요하며, '88 국제올림픽대회에 대비해서 물리치료사들의 A.T.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리치료가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143명(75.3%)이었으며, 물리치료에 대해서 불만

족인 경우가 62명(40.2%)이었으며, 불만족한 이유로서는 장기적인 치료와 치료효과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운동선수가 만족할 만한 치료개선을 찾아야할 것이며, 하루속히 선진국처럼 자 분야별(내과, 정형외과, 스포츠 등)로 필요로 한 전문적인 물리치료 방법이 고안되고, 임상에 적용 실시되어야 한다.

손해당시 치료자는 의사가 5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침구사(11.6%), 한의사(11.1%)순이었는데 김(1984)³⁾은 한의사가 4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사가 28.8%이었으며, 치료방법은 침과 물리치료이었다고 했다. 진(1984)¹²⁾은 일본 스포츠 센터에서는 물리치료, 맛사지, 침구전문으로 면허증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면허증 및 자격증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도 물리치료에 대한 기술개선에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운

운동선수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침구나 맛사지 또한 아울러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되지 않은 이유는 “치료기간 중에도 계속 운동을 하기에”가 46명(50.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선수부족과 지도자들의 승부의욕에 집착한 나머지 계속 연습 및 시합에 참여시키고 있는데서 사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에게 손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킴으로써 손상으로부터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대학 운동선수들의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운동선수 개개인에게 충분하고 솔직한 손상정도 및 치료과정을 설명바란다.
- 2) 물리치료 효과가 장시간이 걸리므로 물리치료 개선을 요망한다.
- 3) 스포츠 전문 물리치료실이 각 대학에 설치되기를 바란다.
- 4) 환자에 비해 물리치료사 수가 적어서인지 충분히 치료를 못받고 있고, 성의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V. 결 론

1987년 5월 21일부터 1987년 5월 23일 동안에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190명의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 총 190명 중에 남자가 164명(86.3%)이었으며, 20세가 67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별로는 무교가 81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 종류로는 타박상이 106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근육통으로 103건(26.6%)이었다.
2. 물리치료사를 알고 있는 선수는 121명(63.7%)이었으며 ‘병원에서 치료해주는 물리치료 기사로서’가 62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는 잘못 인식되고 있었다.
3. 물리치료사의 학력을 전문대졸로 67명(35.3%)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은 대학졸(4년제)로 49명(25.8%), 보조학원 32명(16.8%)의 순이었다.

4. 물리치료사와 A.T. 역할이 같지 않다면, 물리치료과에서 A.T.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47명(48.0%)이었다.

5.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운동선수는 143명(75.3%)이었고, 체육학과에 물리치료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144명(84.7%)이었으며, 그 이유는 ‘물리치료를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43명(29.9%)으로 가장 많았다.

6. 물리치료의 만족도는 ‘불만’이 57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유의한 차가 있었다.

7. 효과적인 물리치료 종류는 ‘찜질’이 113명(3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맛사지’가 94명(27.5%)이었다.

8. 물리치료를 받고 원래되지 않은 경우가 92명(59.7%)이었고, 그 이유는 ‘치료기간 중에도 계속 운동을 하기에’가 46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9. 운동부서에 따른 물리치료 만족도는 구기가 88명(57.1%), 평균 3.27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운동경력에 따른 물리치료 만족도는 8~10년이 32명(20.8%), 평균 3.38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참 고 문 헌

1. 강신일: 체조선수 외상에 관한 조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2. 김덕선: 체육심리학, 형설출판사, pp. 35-36, 1973.
3. 김상수: 한국남자 배구선수들에 있어서 운동 중 상해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4. 김영석: 체조선수의 상체에 관한 비교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5. 성수원: 올림픽과 물리치료(I), 물리치료회보 39:1~2, 1986.
6. 성수원: 올림픽과 물리치료(II), 물리치료회보 40:1~2, 1986.
7. 이명수: 88 서울올림픽에 관한 고교생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8. 이의금, 나춘권: 족구경기 중 발생된 손상의 임상적 분석, 대한스포츠의학회지 5(1): 1~6,

January, 1987.

9. 이진화, 채홍원 : 구기운동지침, 형설출판사, pp. 8~9, 1975.
10. 조강하, 이창환 : 운동훈련 중의 외상,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1(1) : 71~74, 1964.
11. 조태을, 신병기, 김석진, 박영철 : 체육지도서, 형설출판사, pp. 25, pp.86, pp.95, pp.177, 1979.
12. 진춘장 : 스포츠 P. T. 의 전망, 신구물리치료과 동문회보 19 : 1, 1984.
13. 하권익 : 창간사.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지 1(1) : 1, January, 1983.
14. 하권익 : 선수의 건강관리,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지 1(2) : 131~135, June, 1983.
15. 하권익, 한성호, 정민영, 장희선 : 운동선수의 스포츠손상에 대한 임상적 분석, 대한스포츠의학회지 3(1) : 15~19, 1985.
16. Bertran Z, Jerome VC: Acute muscle and tendon injuries in athletes, Clinics in Sports Medicine 1(1): 167-182, March, 1983.
17. Dodge JS: Factors related to patients' perception of their cognitive needs, N.R. 18(6):502-513, Nov. ~ Dec., 1969.
18. Dumas RG, Leonard RC: The effective of nursing on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vomiting, nursing research 12(1): 12-15, Winter, 1963.
19. Nickerson D: Teaching the hospitalized diabetics, A.J.N. 72(5):35-38, May, 1972.
20. Dender NJ: Patient identification of health received during hospitalization, N.R. 23(3): 262-267, May-June, 1974.

인 사 의 말 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물리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며,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 그리고 상해의 조기 회복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연구자료로만 이용될 것이오니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7. 5.

연구자 : 동남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연구실

권 해 정

I. 다음 해당란 _____에 V표로 표시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 1. 연 령 : 만 _____ 세 (출생년도: _____)
- 2. 학 년 : 1) 대학 1년 _____ 2) 대학 2년 _____ 3) 대학 3년 _____
4) 대학 4년 _____
- 3. 성 별 : 1) 남 _____ 2) 여 _____
- 4. 종 교 : 1) 천주교 _____ 2) 기독교 _____ 3) 불 교 _____
4) 기 타 _____ 5) 무 교 _____
- 5. 결혼상태 : 1) 기 혼 _____ 2) 미 혼 _____
- 6. 입원경험 : 1) 유 _____ 2) 무 _____
- 7. 운동부서 : 전공운동종목 _____
- 8. 운동경력 : _____ 년 _____ 개월 _____
- 9. 부상경험 : _____ 번
- 10. 부상종류 : _____ 1) 염 좌 _____ 2) 탈 구 _____ 3) 타박상 _____
4) 골 절 _____ 5) 근육통 _____ 6) 기 타 _____

II. 다음은 대학 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물음입니다.

아시는 대로 해당란 _____에 V표를 해주십시오.

- 1. 물리치료를 알고 계십니까?
가)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_____
나)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_____ 1) 운동 연습후 손상을 입고난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_____ 2) 친구 또는 선배를 통해서

- _____ 3) 집안식구나 친척을 통해서
- _____ 4) 강의시간을 통해서
- _____ 5) 매스컴(신문, 라디오, 잡지)을 통해서
- _____ 6) 기 타

2. 물리치료를 알고 계십니까?

가)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나)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_____ 1) 의사의 보조자로서
- _____ 2) 마사지를 주로 하는 안마사로서
- _____ 3) 지압을 주로 하는 지압사로서
- _____ 4)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물리치료기사로서
- _____ 5) 테이핑을 주로 하는 운동트레이너(A.T.)로서
- _____ 6) 접골사의 보조자로서
- _____ 7) 기 타

3. 물리치료사의 학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_____ 1) 고졸 _____ 2) 전문대졸(2년제) _____ 3) 대학졸(4년제)
- _____ 4) 보조학원 _____ 5) 기타 _____ 6) 한국에는 양성기관이 없다

4. 물리치료사와 운동트레이너(A.T.)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까?

가)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나) 같다면, 그 이유는?

- _____ 1) 한국에는 A.T. 가 없으므로 물리치료사가 주로 대리하기 때문에
- _____ 2) A.T.와 물리치료사의 치료가 같기 때문에
- _____ 3) A.T.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한다.
- _____ 4) 기 타

다) 같지 않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디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1) 물리치료과에서
- _____ 2) 체육학과에서
- _____ 3) 체육학과, 물리치료과 양쪽에서
- _____ 4) 다른 과에서
- _____ 5) 모르겠다.

5. 물리치료가 운동선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_____ 1) 필요 _____ 2) 불필요

나)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_____ 1) 물리치료가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_____ 2) 물리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다.
- _____ 3) 물리치료이외의 다른 치료가 더 효과적이다.
- _____ 4) 기 타

6. 운동(시험)중에 외상을 받았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갑니까?

- _____ 1) 의사 _____ 2) 한의사 _____ 3) 물리치료사
- _____ 2) 보건의원 _____ 5) 안마사 _____ 6) 접골사
- _____ 7) 침구사 _____ 8) 기타

7. 체육학과 교과과정속에 물리치료에 대한 교과목이 있습니까?

가)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나) 교과목이 없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필요 _____ 2) 불필요

다)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_____ 1) 시험에, 다쳤을 때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 _____ 2) 의학 지식을 갖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 _____ 3) 물리치료사 없는 경우 선수 자신이 치료하기 위해서
- _____ 4) 본인이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
- _____ 5) 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 _____ 6) 물리치료를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 _____ 7) 기 타

8. 선수생활을 마치고서 물리치료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하고 싶습니까?

가)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나) 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 _____ 1)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 _____ 2)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 _____ 3) 다른 선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 _____ 4) 상식적으로
- _____ 5) 기 타

9. 물리치료를 받아보았습니까?

가)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나) 물리치료를 받아보았다면, 처음 언제 받아보았습니까?

- _____ 1) 국민학교 시절 _____ 2) 중학교 시절 _____ 3) 고등학교 시절
- _____ 4) 대학교 시절

다) 물리치료를 받아본 후에 치료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_____ 1) 매우 만족 _____ 2) 만 족 _____ 3) 보 통
- _____ 4) 불 만 _____ 5) 매우 불만

라) 불만인 경우에 그 이유는?

- _____ 1) 치료 효과가 너무 오래 걸린다
- _____ 2) 치료를 받으려던 오래 기다려야 한다.
- _____ 3) 물리치료사가 불친절하다.
- _____ 4) 물리치료사가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다.
- _____ 5) 치료 효과가 거의 없다.
- _____ 6) 기 타

10.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어떤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까?

모든 사항에 V표 해 주십시오.

- _____ 1) 점질 _____ 2) 운동치료 _____ 3) 맞사시
- _____ 4) 테이핑 _____ 5) 전기치료 및 광선치료
- _____ 6) 수치료 _____ 7) 기타

11. 상해를 입을시에 물리치료를 하루에 몇 번씩 받았습니까?

- _____ 1) 1 번 _____ 2) 2 번 _____ 3) 3 번 이상
- _____ 4) 며칠에 1 번

12. 물리치료를 1회에 몇 시간씩 치료를 받았습니까?

- _____ 1) 30분 미만 _____ 2) 30분~1시간
_____ 3) 1~2시간 _____ 4) 2시간 이상

13. 물리치료는 언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__ 1) 운동연습전 _____ 2) 운동연습중
_____ 3) 운동연습후 _____ 4) 아무때나 효과가 있다(운동연습 전·후)

14. 물리치료 받고 원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가)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나) 원쾌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_____ 1) 물리치료사가 성의없게 치료해서
_____ 2) 본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아서
_____ 3) 물리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_____ 4) 의상정도가 심해서
_____ 5) 치료 기간 중에도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_____ 6) 기 타

15.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운동했을때 치료부위가 재발되었습니까?

- 가)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나) 재발이 되었다면 치료받기 전과 상태를 비교한다면?

- _____ 1) 더 심함
_____ 2) 그전 상태 그대로
_____ 3) 조금 덜함
_____ 4) 기 타

16. 물리치료를 치료사의 지시대로 끝까지 받았습니까?

- 가)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나)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 _____ 1)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서
_____ 2) 물리치료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_____ 3)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_____ 4) 계속 운동(시합)이 있어서
_____ 5) 기 타

귀하께서 물리치료에 타라는 바가 평소에 있었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의견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뒷장이용).

***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